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의견 13건 최종본에 반영

제출된 의견 총 984건...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중간결과 발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백한 사실 오류 및 개선사항 등 13건을 최종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인 금융환 학교정책실장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웹 공개 사이트(historytextbook.moe.go.kr)로 제출된 검토의견은 2일 기준으로 984건이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는 이 가운데 13건을 반영하고 85건은 학술적 검토 중에 있다. 금융환 실장은 "제출된 의견은 매우 편찬기간인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돼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84건 중 13건의 반영 사항은 곧바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85건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학술적 검토 중에 있다. 금융환 실장은 "일반에 공

개한 현장검토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인 관계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많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보내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정 역사교과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과서 제도를 비롯한 서

술내용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886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검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국내 역사전문연구기관과 국립국어원의 내용검토와 표기·표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편찬심의회 의 심의 검토와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댓글·팔로우 관리 기능 강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Instagram)이 사용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댓글 및 팔로우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댓글을 아예 달 수 없도록 하는 기능과 비공개 계정 사용자가 자신의 팔로우 중 원치 않는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인스타그램을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댓글 해제 기능을 9월 적용된 댓글 필터링 기능(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댓글을 걸러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했다. 인스타그램은 댓글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콘텐츠를 포스팅하기 전에 '고급 설정(Advanced Settings)'을 누르고 '댓글 가능 해제(Turn Off Commenting)'를 선택하거나 게시물 후 게시물의 오른쪽 위 메뉴를 눌러 '댓글 가능 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메뉴를 통해 댓글을 해제했던 게시물의 댓글을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다. 댓글 열 하트를 눌러 댓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인다. 사용자 간 소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인스타그램은 댓글 해제와 댓글 '좋아요' 기능을 오늘날부터 수주에 걸쳐 전세계 사용자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포스팅 공유하기 화면에서 화면 아래의 '고급설정'을 클릭하면 댓글 기능을 끌 수 있다. 댓글 열 하트를 눌러 '좋아요'를 표시할 수도 있다. 비공개 계정에서 팔로워를 삭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비공개 계정이든 한 번 팔로우 신청을 수락하면 사용자가 차단하는 것 외에는 상대가 내 게시물을 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내가 팔로우를 수락한 사람이라도 팔로우 리스트에서 이를 열의 메뉴 버튼을 눌러 '삭제'를 선택하면 내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삭제된 팔로워에게는 별도의 알림이 가지 않는다.

비공개 계정의 경우 팔로우 리스트에서 이를 오른쪽 메뉴 아이콘을 클릭 원치 않는 팔로워를 삭제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CEO인 케빈 시스트롬은 "인스타그램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거러둬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학생의 미래, 진로컨퍼런스로 디자인하다

전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 컨퍼런스 개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12월 9일 영암 호텔현에서 전남 도내 중·고 진로진학상담교사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강화와 학교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희대 석철진 교수는 특강에서 '사(事)고치며 미래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고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성중 교육과정과장은 "진로교육은 세상의 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다"며 "진로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로교육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희 기자



나눔과 배려 실천하는 학생들

나주공고, 명장공방 봉사단 지역민 보일러 교체 봉사 실시

나눔과 배려의 실천적 교육을 포괄한 나주공업고등학교(교장 임연택) 명장공방 봉사단 학생 10명은 주말을 이용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성인 명장과 함께 지역민들의 보일러 30대를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나주공고의 명장공방 봉사단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명장의 주도하에 익히고, 주말과 방학에는 관내 특기노인 및 농가를 방문하여 오·배수시설 점검 및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 수도꼭지 교체, 보일러 정비 등의 실무교육을 봉사자를 통해 배우고 익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목표로 하기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방서 작성, 견적내기, 공정제우기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배웠다. 이번 보일러 교체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정민(1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점차 배우며 나의 기술을 사용하여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며 실천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를 함으로써 불우이웃들이 앞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T맵, 돌발상황에 더욱 강해졌다

'5.0버전' 출시...운전자 사용 편의 극대화

SK텔레콤(www.sktelecom.com)은 월간 사용자 1,000만명의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T map)'의 돌발상황 관련 정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고 사용자편의성(User Interface)을 개선했던 'T맵 5.0버전'을 8일 오후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주행 시 이전 T맵에서는 고속도로 모드로에서만 제공되던 돌개이트와 주유소 정보를 해당 모드를 끄고 일반 주행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의 사용 편의를 높였다. 음성검색도 음성인식시켜 '누구(NUGU)'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인공지능(AD) 기능을 적용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SK텔레콤은 T맵에 AI 기반 딜러링 방식으로 사용 이력이 있는 목적지나 주소에 대한 T맵의 음성 인식률이 높아져 고객들의 음성검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희 기자

또 김희광 학생은 "보일러가 아예 없이 사는 가난한 집들도 있어 높이고 보일러실이 열악한 집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현재 환경에 불만을 갖던 것에 대해 냉정해졌습니다. 명장과 함께 보일러를 배우면서 보일러에 필요한 부품의 이름이 생소해서 어려웠고 복잡한 보일러의 원리와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다. 하지만 저의 작은 기술로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연택 교장은 "명장공방 봉사단 활동이 지역민과 특성화고 학생 상호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T맵 5.0버전'은 우선 목적지 및 관련 정보를 기존보다 더욱 빠르게 조회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물론 자주 쓰는 메뉴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특히, 메인 화면 내 운전자가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SK텔레콤은 T맵 인증을 위한 방식으로 기존의 사용자 휴대전화 번호 인증 외에 새롭게 '아이디' 체계를 도입한다. T맵 사용자들은 'T아이디' 인증을 통해 기가나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여러 단말기에서도 최근에 찾이간 길과 즐겨찾기 뿐 아니라 운전습관 점수까지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이혜일 T맵사업부장은 "고객들이 기존 T맵에 제안해준 사항들을 적극 받아들여 더욱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T맵 5.0버전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선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현본부 032-429-1000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함.-1.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책임분담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터 및 영상기기, 융합 설계공사
- 전자신문, 문서내단기

03 불용물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물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맡김에 해결

불용물처리 및 불용물처리 관련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불용물들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 소멸을 배양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물처리 수거비용이 부족한 경우, 100%에 대한 100%의 자원 활용을 통해 부족한 나사의 자원을 공급하는데 100%의 원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LASER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